

인벤티지랩, 약물중독 치료제 美 특허… 임상 2상 본격화

월 1회 투여 치료제 ‘IVL3004’
기존 비비트롤과 차별화된 용량
약효 지속성·제조기술 범위 확대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약물중독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관한 미국 특허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날트렉손을 포함하는 서방형 주사제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인벤티지랩이 개발 중인 월 1회 투여형 약물중독 치료제 IVL3004의 핵심 제형 특성과 제조기술을 보호한다.

권리범위에는 일정한 약동학적 특성과 균일한 입도분포를 갖는 미립구 조성물 및 제조방법이 포함됐다. 이는 약물의 급격한 초기 방출을 제어하면서 1개월간 안정적으로 방출되는 IVL3004의 제품 성능을 구체적인 수치로 권리화한 것이다.

특히 중속항에는 240mg 초과 310mg 미만의 날트렉손을 포함하는 조성물이 명



인벤티지랩이 약물중독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관한 미국 특허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았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시됐다. 기존에 사용된 의약품인 알커미스의 비비트롤(Vivitol)의 특허가 190~240mg 및 약 310~480mg의 투여량과 경구제 대비 혈중 노출량, 치료방법을 주요 권리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인벤티지랩은 차별화된 고유의 용량 영역을 확보하고 특정 투여 용량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

한 약동학적(PK) 특성 자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권리까지 함께 담았다. 여기에 입도 균일성, 장기 지속 방출 성능, 독자적 제조공정 기술을 결합하여 기존 특허 장벽을 극복했다.

인벤티지랩은 앞서 특정 입자 크기와 생분해성 고분자 특성을 갖는 날트렉손

미립구 조성물에 관한 미국 특허를 등록했다. 기존 특허는 미립구의 구성과 입자 특성을 보호한다면, 이번 특허는 약동학적 성능과 입도분포, 용량 범위 및 제조방법까지 추가로 보호한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특허 등록결정은 IVL3004의 미국 개발과 사업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알코올 및 오피오이드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장기지속형 날트렉손 시장이 이미 크게 형성돼 있어, 임상적 유효성과 환자 편의성이 검증된 개량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장이다. 인벤티지랩은 IVL3004를 기존 제품보다 적은 용량으로 4주간 유효 치료 혈중농도를 유지하고 주사부위 반응의 지속기간을 단축한 임상 1상 결과와 등록된 미국 특허들을 기반으로, 비비트롤의 한계를 개선한 개량신약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제품 권리와 제조기술 보호는 향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협상에서 IVL3004의 사업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미국 FDA 임상개발을 통해 확보한 임상·허가 자료를 국내 개발에 연계하고, 향후 중독 치료기관과 공공의료 영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IVL3004 개발 과정은 최근 ‘2026년 정책지정형 글로벌 틱스’에 선정됐다. 인벤티지랩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 FDA와의 규제 협의 및 글로벌 임상 2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이번 미국 특허 등록결정은 IVL3004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 시장에서 독자적인 개량신약을 개발하고 글로벌 파트너를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 사업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미국 임상개발 성과를 국내 허가과 공공의료 시장 진입으로 연결해 약물중독 치료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식품연과 건기식 신소재 개발

건강수명 연장 소재 개발 등 협력
효능 검증, 분석법 개발, 제품화 연계

LG생활건강이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및 분석기술 개발 등 식품 분야 연구 사업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나이 드는 ‘웰에이징(well-aging)’ 시대를 맞아 건강수명 연장(Longevity) 관련 소재를 발굴하고,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LG생활건강과 식품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제형 기능성분 분석법 공동개발 ▲신규 건강수명 연장 소재 공동개발 ▲사업과 분야 비즈니스 모델 협업 ▲국내외 신시장 진출에 필요한 상품개발 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교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R&D 인프라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간다

특히 LG생활건강의 제품 개발 및 글로벌 사업 역량과 식품연의 식품 분석·연구 인프라를 결합해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



LG생활건강과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이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효능 검증과 분석법 개발, 제품화 가능성 검토를 연계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솔루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양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신소재 검증과 신제형 식품 분석 등 세부 협력을 본격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글로벌 시

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과학적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건강 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출발점”이라며 “식품연과 긴밀히 협력해 연구 성과를 실질적인 제품과 고객 경험으로 연결하고, 미래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6년근 홍삼 담은 ‘유한 데일리 홍삼’

유한양행, 개별 포장으로 편의성 높여

유한양행이 6년근 홍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유한 데일리 홍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루 한 포(10mL)로 간편하게 섭취하는 액상 스틱 형태로, 1일 섭취량 기준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3mg을 함유했다.

‘유한 데일리 홍삼’은 식약처 기능성 기준을 충족해 바쁜 일상 속 하루 한 포로 다섯 가지 건강 고민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30포(300mL) 한 달 분으로 구성된 이번 신제품은 개별 포장 스틱 제형을 적용

해 휴대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별도의 계량이나 물에 희석하는 번거로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깔끔하게 섭취할 수 있어, 기존 유리병 농축액이나 부피가 큰 과우치 형태에 부담을 느꼈던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섭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원료 배합도 돋보인다. 홍삼 고유의 씹싸름한 맛을 완화하고 깊은 풍미를 더하기 위해 엄선된 전통 식물성 원료를 조화롭게 배합,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 없이 부드럽게 마실 수 있도록 구현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홍삼은 대중적인 건강식품인 만큼 원료의 신뢰도와 꾸준하



유한양행 ‘유한 데일리 홍삼’

창거 먹을 수 있는 섭취 편의성이 핵심 선택 기준”이라며, “엄선된 6년근 원료와 유한양행의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상 속 활력이 필요한 현대인은 물론 명절·기념일 선물용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에스티팜, 올리고 원료 913억 수주

미국 바이오텍 기업과 공급계약

에스티팜이 미국 소재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과 913억원 규모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리고 핵산 원료의약품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고객사는 계약서 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공급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 11월까지다.

이번 수주 금액은 에스티팜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 317억 원 대비 약 27.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에스티팜은 올해 1월 825억 원, 3월 897억 원 규모의 올리고 핵산 원료의약품 수주 계약에 이어 이번 913억 원 규모의 계

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단일 수주 규모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에스티팜은 지난해 제2올리고동 증설을 통해 아시아 1위이자 글로벌 톱티어(Top-tier)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조기 개발 단계부터 공정·분석·변경허가까지 고객사 맞춤형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 및 바이오텍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CJ웰케어 침향환, 1년만에 200만환 판매

온라인 채널서 1+1 프로모션

CJ웰케어의 ‘한뿌리 흑삼단 침향환’이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판매량 200만 환을 넘어섰다. 추석을 앞두고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는 1+1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CJ웰케어는 지난해 8월 출시한 한뿌리 흑삼단 침향환의 누적 판매량이 200만 환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약 5000환이 판매된 것으로, 24환 기준 약 8만 3000세트에 해당한다.

제품에는 고품질 침향 15%와 흑삼·녹용·산수유·당귀 등 전통 원료 5종을 배합했다. 흑삼은 100% 국내산 수삼을 9번 찌고 말리는 구경구포 방식으로 제조한 농축액을 사용했다. CJ웰케어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원료다.

침향은 ‘아퀼라리아 말라센시스’ 품종을 사용했다. 회사 측은 중금속 4종과 농약 성분 158종에 대한 정밀검사를 거친 원료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제품의 섭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벌꿀 배합 비율을 조정했으며, 24환을 개별 포장해 휴대와 보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뿌리 흑삼단 침향환

/CJ웰케어

CJ웰케어는 추석 선물 수요에 맞춰 오는 25일까지 주요 유통 채널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와 CJ더마켓, 카키오톡 선물하기, 쿠팡 등에서 1+1 기획전을 운영한다.

CJ웰케어 관계자는 “한뿌리 흑삼단 침향환은 원료 조합과 섭취 편의성을 바탕으로 200만 환 판매를 달성했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